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서로 아끼고 위하면 그곳이 극락

국윤권 담임목사 취임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5005 Edenhurst Ave., LA, CA 90039)가 지난 4일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를 드렸다.

이날 국윤권 목사가 이 교회의 3대 담임목사로 취임했으며, 2002년부터 2대 담임목사로 재임해 오던 민종기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국윤권 목사는 "충현선교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섬리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성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부르신 앞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민종기 목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의 빛을 받고 싶다" 며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신 성도와 장로 권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돌린다" 고 말했다.

2022년 후원의 밤 개최 소망소사이어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를 비전으로 '웰 비잉, 웰 에이징, 웰 다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유분자)의 연례 후원의 밤 '2022 소망 Gala' 가 지난 3일,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 창립 15주년 기념 및 한인 20명의 일생을 담은 구술 자서전 '바람꽃' 출판 기념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유분자 이사장은 "지나온 삶을 돌아 보며 정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록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한인 이민역사" 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전문성을 살리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소망소사이어티는 한인 사회와 함께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며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동반자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자서전 구술자 20명의 대표 이목자 씨는 "자서전 구술이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내 삶을 나눌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고 전했다.

'올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즈 바라 프라바를 타야 홀'

저는 이 광명진언을 54년간 한 시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24시간 광명진언을 염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명진언의 공덕은 참으로 크고 큼니다. 광명진언 한 가지를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원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진언에는 무궁무진한 부처님 법문이 들어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분은 관세음보살을,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는 분은 아미타불을,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분은 지장보살을 열심히 염송하세요. 진언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진언을 외기만 하세요. 단 소원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옛날 청담 큰스님이 출가해 공부를 해보니 이 세상에 불법밖에 없음을 깨달고, 이 좋은 공부를 혼자만 할 수 없다며 속가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도성보살 귀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동안 염불공부 잘하셔서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 삼악도로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님 회상으로 가실 자신이 있었습니까? 모진 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정신없이 잠귀신들에게 끌려가 무주고혼이 돼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점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



릇 비구를 먼저 제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과 위치는 스스로 만든 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내 업의 결과 공양을 먹기 전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밥맛이 좋겠지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면 밥맛도 별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맛이 정말 다른 것입니까? 사실은 모두 같은 맛입니다. 그러면 그 맛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 있을 동안 마음씀씀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두려워할지언정 죽을 자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니 살아생전 업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웃과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이웃을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행복해지도록 서로 아끼고 위한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혜충 스님-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